

제목: "잠잠한 양 같은 예수"

말씀: 이사야 53장 1-12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흥을 이루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더 이상 수렁에 빠져들지 않도록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600여 년 전에 벌써 매우 자세히 설명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그들에게 오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며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 1) 연한 순 같은 _____이 없으셨던 분이십니다. (2절)
- 2)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_____과 같았던 분이십니다. (7절)
- 3)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한 _____제물이 되신 분이십니다. (10절)

우리교회가 섬기는 선교지	
백남일/김유정 선교사	북아프리카, 프랑스 이슬람권 사역 (난민)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교회개혁 및 목회자 사역
깊은 뿌리 나무 (Deep Roots Church)	한인 2세를 중심으로 개혁된 다민족 교회 (뉴저지)
김인선/신유선 선교사	현지 교회, 사랑의 집짓기, 학교, 잡버 사역

지난 주 헌금	
십일조	
주일	
합계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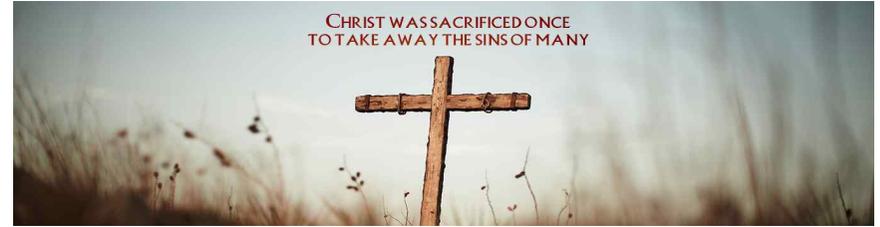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Let us Give a Brand New Heart to God" (2 Corinthians 5: 17)



종교개혁 주일예배 Reformation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12: 30 PM

인도: 김성민 목사
President: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Call to Worship President
- * 찬양 다같이
Praise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다같이
Prayer All Together
- 성경말씀 이사야 53장 1-12절 설교자
Scripture Reading Isaiah 53: 1-12 구약 1033 페이지 President
- 말씀 "잠잠한 양 같은 예수" 김성민 목사
Message The Lamb of God Rev. Kim
- 성찬식 다같이
Communion All Together
- 헌금/기도 다같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 광고/환영 인도자
Announcement President
- * 찬양/헌신기도 주님 내가 여기있사오니 다같이
Praise and Prayer Lord Here I am All Together
- * 축도 설교자
Benediction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담임목사 컬럼 (개혁자의 삶)

몇 년 전 스위스 제네바에 종교 개혁자인 칼빈(Calvin)이 목회하던 교회를 방문 한 적이 있다. 그 교회는 수 백 년 동안 칼빈을 통한 개혁의 뜻을 잃지 않고 아직도 예배하는 교회다. 관광객들에게 문을 열어 주어서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다. 그곳을 방문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어떠했을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을까? 물론 책으로 읽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직접 그 장소를 방문하여 예배당 의자에 앉아 있고 보니 많은 궁금증과 아울러 나도 그러한 역사를 체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젖게 되었다. 나에게 하루 종일 있다가 가라고 해도 그렇게 하고 싶을 정도였다. 한 참을 앉자 있다가 강대상을 돌아 뒤편에 가보니 그 당시 칼빈이 설교하기 전 기다리며 앉아 있었던 의자가 있었다. 우리로 말하자면 강대상에 있는 목사가 앉는 의자다. 그곳은 앉을 수 없도록 줄을 쳐 놓았지만 사진을 여러 장 찍어 왔다. 죽을 때까지 기억하기 위함이다. 한참을 사진을 찍고 가만히 그 앞에 서서 칼빈의 생각에 들어가고자 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그 때에 문득 들었던 생각은 그가 곧 전해야 할 설교를 정리하고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께 설교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했을 것이다. 그러면 어떤 설교였을까? 제목은 무엇이었을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죄와 이별을 해야 한다는 설교가 아니었을까? 그런데 500여 년이 지난 지금의 설교는 다른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 풍성하다고 여기고 있으니 얼마나 많이 변했는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설교를 하면 예배가 식었다고 말하지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면 다 아는 이야기라고 하지 않는가? 하지만 그 의자에 앉아 있었을 칼빈은 오직 십자가를 전했을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종교개혁 504 주년을 맞으며 혹시 우리는 너무나 빛바랜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 그리고 제대로 색을 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버리고 새것을 입어야 한다. 제네바에 개혁을 일으킨 칼빈과 같이 우리도 이 지역 이 시대에 개혁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 개혁은 헌신과 희생의 무릎이 없이는 결코 기대할 수 없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밀알과 같이 썩어서 결국에는 맛을 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개혁의 간증을 들려준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러면 새롭게 되어야 하고 새로운 향기와 새로운 맛을 내며 새롭게 살며 새로움을 만들어 내야 한다.

하나님은 종교개혁이 500여 년 전에 일로 기억되기를 원치 않으신다. 오늘의 이야기고 내일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전달할 사람은 바로 나요 우리인 것이다.

교회소식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마음껏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랜 만에 함께 교회에서 예배 합니다. 매주 예배에 결석하지 말고 열심히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간단한 친교가 있습니다. 간단한 간식을 나누며 이야기하며 귀한 사귄이 있기 바랍니다..

2. 기도의 삶

이번 주 기도제목

- 1)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 2) 더욱 서로 사랑하여 한마음 되는 교회 되도록
- 3) 새로운 등록된 성도들이 믿음생활과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 4) 교육부 사역이 시작되도록
- 5) 건강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하여
- 6) 선교지를 도우며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 7) 모두 Covid-19을 통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 8) 교회 비전에 맞는 찬양 사역자를 위하여
- 9) 우리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 교회가 세워지도록
- 10) St. Andrew's 교회 사역을 위하여

Deep Roots Church:	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백남일 선교사:	프랑스의 복음화를 위하여 (북아프리카 사람들)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개신교 목회자들을 위하여
김인선 선교사:	니카라과의 사역을 위하여 (교회 개척과 학교)

3. 새벽 기도회

새벽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오전 6시에 교회에서 다시 시작 됩니다.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새벽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친교

앞으로 당분간 예배 후 친교 준비는 교회에서 합니다. 개인적으로 부탁은 가능하겠지만 비용은 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5.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 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

이 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